

1회 투여로 아토피 개선... 줄기세포 치료제 상용화 '눈앞'

강스템바이오텍 '퓨어스팀-에이디주'

환자에 투약...임상3상 본궤도
기존 치료제 2주간격 반복투여

"기존 치료방법 안통하던 환자
줄기세포 치료제가 대안 될 것"

세계 첫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임상3상이 본격 궤도에 진입했다. 새로운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근본적인 치료제로, 전 세계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희망이 될 도전에 막이 올랐다.

강스템바이오텍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의 3상 임상시험(FURIN 연구)에 참여하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첫 번째 환자에게 투여를 완료한 것.



강스템바이오텍이 개발한 동결상태의 '퓨어스팀-에이디주'를 전용 해동기인 퍼플 비를 이용해 해동하고 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13일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퓨어스팀-에이디주'의 3상

임상시험의 첫 번째 환자 투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에는 회사가 자체 개발한 '셀랩(SELAF)'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치료제가 사용됐다.

셀랩 플랫폼 기술은 제대혈 내 극소량으로 존재하는 줄기세포를 순도 95% 이상 분리한 후, 대량 생산을 통해 동결 제형으로 만들어낸다. 기존 완제품의 유효 기간은 2일이었으나, 동결 보관으로 그 기간을 3년까지 끌어올렸다. 세포 생존율도 해동 후 90% 이상 유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결된 세포를 해동할 때는 항온수조 기기를 사용한다. 그러나 강스템바이오텍은 비접촉식 '건조해동 시스템'인 '퍼플 비'를 아모라이프사이언스와 공동 개발해 ▲무균성 ▲균일성 ▲추적성을 개선했다. 또 해동 시마다 생길 수 있는 바이알 간 온도 편차 및 작

업자 간의 편차를 줄여 해동 과정을 표준화했다. 이를 통해 모든 환자들에게 세포의 활성이 최상으로 유지된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게 됐다.

회사는 이번 3상 임상시험에 그동안의 노하우를 집중했다. 우선, 임상 참여 환자 전원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투여(시간차를 둔 대조군 구별)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제약품 및 병용약품과 같이 유효성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을 통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는 생물학적 제제로서 보통 2주 간격으로 반복투여해야 하는 등 환자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강스템바이오텍은 단회 투여로 근본적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정 수용체를 차단하는 방식이 아닌, 아토피를 유발하는 면역체계의 균형성과 항

상성 유지 작용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아토피 증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원리다.

시장조사 기관인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시장은 2021년 약 12조원에서 2024년 약 17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나종천 강스템바이오텍 대표는 "퓨어스팀-에이디주는 '단회 투여'만으로도 근본적인 자가 면역을 치료할 수 있다"며 "기존 치료 방법이 통하지 않았던 환자들 역시, 우리 치료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토피 피부염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일상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임상3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오는 2022년까지 모든 환자 투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브이앤코, '코어텍틴 라인' 추석 기획전

3종세트 30% 할인... 사은품 증정

코어탄력 전문 브랜드 브이앤코(V&Co)가 9월 한 달간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코어텍틴 라인' 추석 특선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브이앤코는 많은 고객들이 환절기 피부를 다독여줄 코어텍틴의 힘을 경험하고, 추석을 맞아 이를 소중한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이번 기획전에서 브이앤코는 브이코어텍틴 토너와 앰플, 크림 총 3종으로 구성된 '코어텍틴 라인 3종 세트'를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3종 세트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2만5000원 상당의 38ml 세럼 한 병의 영양을 담은 '브이시그니처 마스크 세럼'도 증정한다. 아울러 실속 있는 앰플·크림 구성의 2종 세트는 15%, 코어텍틴 라인의 개별 제품은 각각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어텍틴 라인은 피부 속 효소를 깨워 직접 콜라겐을 생성하도록 도움을



'코어텍틴' 토너, 앰플, 크림 제품 이미지. /브이앤코

주는 스킨케어 제품이다. 코어텍틴 라인의 주성분 '코어텍틴'은 피부 건강에 필수 요소인 프로 콜라겐, 비타민C, 히알루론산, 엘라스틴으로 이뤄져 피부 탄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 또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주며 외부 환경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피부 본연의 힘을 길러주는 게 특징이다.

특히 코어텍틴 라인의 베스트 제품인 '브이 코어텍틴 앰플'은 출시 직후부터 현재까지 네이버 공식 스토어 평점 4.9점을 받으며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항암제 '온트루잔트' 5년 생존률 '우수'

삼성바이오에피스 '유방암 치료제' 환자 총 367명 대상 5년 관찰연구
오리지널 '허셉틴' 보다 생존률 높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유방암 치료제 '온트루잔트'의 5년간 생존율이 오리지널 의약품인 '허셉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비대면으로 열린 유럽 종양학회(ESMO)의 정기 학술 대회에서 이 같은 5년 추적 임상 결과를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추적 관찰에 동의한 총 367명의 HER2 양성 초기 유방암 환자 또는 국소 진행성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5년 관찰 연구(심장 기능 안전성 및 장기적 효능) 형태로 진행했으며, 이번 발표된 데이터는 약 68개월에 해당되는 수치를 집계한 임상 결과다.

결과에 따르면 심장의 이상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무증상의 '좌심실 박출률' 수치가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는 온트루잔트 투여군 중 1명, 오리지널 의약품 투여군 중 2명으로 둘 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 다른 안전성 지표인 '울혈성 심부



삼성바이오에피스 연구원들이 바이오 실험실을 둘러보고 있다.

전증' 관련된 이상 징후는 두 집단 모두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의약품 효능 측면에서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치료 시작 후 재발, 진행, 사망이 발생하지 않고 생존하는 비율인 '5년 무사건 생존율'은 온트루잔트 투여군에서 82.8%, 오리지널 의약품을 투여군에서 79.7%의 결과를 보였다.

치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했을 때 환자가 생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5년 전체 생존율'은 온트루잔트 투여군에서 93.1%, 오리지널 의약품 투여군에서 86.7%의 수치를 보였으며 오리지널 의약품 투여군 대비 온트루잔트 투여군의

EFS 및 OS 위험 비율을 통해 생존 기간이 유사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5년 추적 분석으로 온트루잔트와 오리지널 의약품의 심장 기능 안전성과 장기적인 효능이 유사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해외 마케팅 파트너사인 오가논의 실적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온트루잔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상승한 4500만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세경 기자

맘스터치, 내부분쟁조정기구 연내 출범

가맹점과 상생협력 강화

토종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는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내부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맘스터치 내부분쟁조정기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구성, 운영되며 연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맘스터치는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외식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해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하고, 지난 6월 25일 공정위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율규약을 체결했다.

이 자율 규약은 필수품목 지정 최소

화,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 보장, 내부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규약 체결 이후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안들을 마련해왔다.

맘스터치는 최근 가맹점과의 분쟁이 부각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전국 각지의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갈등 상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부분쟁조정기구 설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내부분쟁조정기구는 공정위 가이드에 따라 신속한 조정력과 전문성, 공정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 외부 전문가로 선정한 위원장, 가맹점주 대표위원, 가맹본부 대표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원은미 기자

동원그룹,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150여명 규모... 23일부터 서류접수

동원그룹이 2021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동원그룹은 동원산업, 동원F&B, 동원푸드, 동원시스템즈, 동원건설산업, 동원엔터프라이즈 등 10개 주요 계열사에서 IT, 생산기술, 신소재 개발, 물류, 연구, 마케팅, 영업 등 다양한 부문의 인재를 채용한다. 채용 규모는 150여 명이다.

동원그룹은 최근 2차전지 소재 사업을 통해 신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 계열사에 스마트 팩토리 시스

템 구축에 나서는 등 다양한 첨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산기술과 연구 직무에 채용 정원을 대폭 확대해 올해 전체 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이번 공개채용은 대학교 기졸업자 및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채용과정은 ▲서류전형 ▲온라인 필기전형 ▲1차 면접 ▲최종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서류접수는 23일부터 내달 13일까지이며, 동원그룹 채용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동원그룹은 이번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메타버스를 통한 직무상담을 제공한



동원그룹이 2021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동원그룹

다. 동원그룹은 채용대행 전문업체인 NHR 커뮤니케이션즈가 주관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커리어톡'에서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 6개 대학을 대상으로 채용박람회를 14일과 15일 양일간 진행한다.

/원은미 기자